



입사한지 두 달 된 메트로경제 6기 수습기자들이 도시 생활을 잠시 내려놓고 농촌 취재 겸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기자들이 2박 3일 동안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에 내려가 먹고 자고 어울리며 농산물 유통과정, 종자 개량 사업 등을 취재했습니다. 벽화도 직접 그렸습니다. /편집자주

‘기자가 무슨 벽화 칠’ 미답장던 주민들 “마을 흰해졌네”

Q 르포 마을 벽화봉사·농촌일손 돕기

“벽화 덕분에 씨곶했던 우리 마을이 아주 흰해졌대니까루~”(신현1리 부녀회 일동)

지난 10일 벽화봉사와 농촌 일손 돕기를 위해 메트로 신문 수습기자들이 충북 제천시 덕산면 신현1리로 향했다. 신현1리에 도착하자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의 브로콜리밭과 검붉은 적재밭이 한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마을은 예상보다 낙후했고,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마을회관 앞에는 벽화 작업을 해야 할 잿빛의 농산물 저장 창고가 있었다. 창고의 크기는 가로 16m, 세로 5m. 생각보다 큰 창고에 두려움과 막막함이 몰려왔다. 또 당장 페인트칠을 시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수습기자들 모두 벽화 작업 경험은 전무했다.

이학귀(59) 신현1리 이장은 “서울을 오가며 발표도 진행해 새마을사업을 어렵게 따냈다”며 “농산물 보관 창고에 벽화 작업을 한다면 마을 입구가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새마을사업’이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주는 국책사업이다. 생활기반 수리 지원 및 돌봄·일자리 등의 휴먼케어에 종합적으로 지원해준다.



벽화 봉사를 하기 전 신현1리 창고의 모습. /백지연 기자



벽화봉사가 끝난 신현1리 창고의 모습. /원은미 기자

제천시 덕산면 신현1리 경제어려움 보다 일손 부족 토로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도 떠나

오후 3시 신현1리의 새마을사업 총무와 함께 페인트를 구매하기 위해 40분가량 떨어진 중부 시내로 향했다. 처음 도착한 페인트 가게에는 조색 기계가 없어 색상을 다양하게 구할 수 없었다. 이어 찾아가던 충북 충주시 칠금동에 위치한 A 페인트 가게 사장은 “이 정도 크기는 전문 인력이 나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컨테이너 철제 외벽에 페인트칠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외벽의 틈 사이를 하나하나 메꾸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이유였다.

마을 주민들도 수습기자들에게 페인트칠을 맡기기 민망해하는 눈치였다.

한 주민은 “이제라도 전문 인력을 불러 흰색 바탕 작업을 맡기는 게 어떨냐”고 물었다. 전문 인력을 부르면 벽화 작업은 12일 저녁이 넘어 끝나는 상황이었다. 자칫하면 일정에 차질이 생겨 차라리 한시라도 빨리 작업을 시작해보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외벽 바탕이 될 흰색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했다. 세 시간가량이 지나자 반 정도가 칠해졌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였다.

저녁 식사 후 이장과 새마을사업 추진위원회가 간단한 환영회를 준비했다. 그러나 수습기자들은 그 자리를 즐길 여력이 없었다. 마을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을 털어냈기 때문이다. 신현1리 주민들은 소비위축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농촌 일손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걱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떠난 데다 입국도 막혀있다는 이유다. 농산물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에 본격적으로 인력이 투입돼야 하지만 올해 외국인 근로자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벽화 봉사를 끝마치고 농촌 일손을 돕기로 했다.

11일 오전 7시 다시 페인트 작업을 재개했다. 창고 외벽을 흰색 페인트로 완전히 뒤덮었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땀방울과 흰색 페인트 자국이 가득했다. 도안을 담당하던 박미경 기자가 스케치를 마치는 즉시 롤러와 붓을 이용해 색을 입혔다. 사다리와 지게차에 올라타 창고 위쪽에 구름과 백로도 그렸다. 그렇게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던 벽화 봉사가 오후 6시쯤 막을 내렸다.

12일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브로콜리밭으로 향했다. 이미 재배 작업이 한창이었다. 뒤늦게 합류한 수습기자들은 브로콜리가 담긴 박스를 나르기 시작했다. 동기들은 7~8kg의 브로콜리가 든

박스를 옮기면서 가쁜 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두 번째 향한 일터는 드넓은 들깨밭. 들깨밭 주인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호미를 이용해 일정한 간격으로 모종을 심기 시작했다. 그는 “원래 손자가 자주 내려와 일손을 도왔다”며 “코로나19로 손자가 방문하지 못해 일손이 부족했는데 기자들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끝마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일정이 끝나자 모두가 손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했다. 몸 여기저기에 미치지우지 못한 페인트 자국과 멍이 가득한 수습기자도 있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에 빠진 한 수습기자는 밥상 위에 올라오던 브로콜리 하나와 아무 생각 없이 먹던 들기름이 떠올랐다고 했다. 농사일의 고충을 전하던 신현1리 마을 주민들의 얼굴이 오버랩됐다.

/백지연·박미경수습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양채로 떠오른 제천영농조합

(서양채소)

5월 기준 매출 30억, 전년비 50% ↑
“연구 통해 농약 최소화·비용절감”



지난 11일 오전 6시경 제천 양채영농조합의 조합원들이 서울 가락시장으로 갈 양채류를 트럭에 싣고 있다. /이영석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교 등이 휴업하면서 농산물 납품 통로가 줄어들자 농촌이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변화하는 입맛을 겨냥해 양채(서양채소)를 길러내면서 위기를 돌파하는 곳이 있다. 바로 충북도 제천시 남부에 위치한 남제천이다.

남제천 농가들은 영농조합을 꾸려 소득을 늘려가고 있다. 네 개의 영농조합 중 하나인 제천양채영농조합법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상반기 대형 마트에 유통하는 상품의 총매출액은 20억이다. 올해는 5월 기준 이미 30억 매출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10억원 증가한 상태다. 작년에 비해 50%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 트렌드를 이끈다

제천양채류의 판매액이 증가한 데는 여러 원인이 있다. 건강식에 대한 관심 증대, 간편식의 확대하는 트렌드를 낚는 것보다 먼저 포착해 작물 선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가공해 온라인서 간편 식품으로 가공해 판매한다. ‘비트·사과즙’이 그 대표적인 예다. 온라인 배송으로 판매하는 종류는 언택트(비대면)의 활성화와 함께 호황을 맞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새로운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독특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

◆ “아직도 연구 중이에요”

제천 양채영농조합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실패가 많았다. 한 번 종자가 들어오면 2년 동안 네 번에 걸쳐서 시험 재배한다”면서 “지역 재배에 알맞다고 판명 나면 공급받는다”고 말했다. 이곳의 농가들은 비교적 젊은 연령층을 동력 삼아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거리낌이 없었다.

제천 덕산면 브로콜리 재배는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연구 개발 덕에 양질의 채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브로콜리 농사를 하는 이곳 주민 이용연(51)씨는 “올 봄에 수확한 작물들에 농약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농약을 최소화하면서 비용도 절감하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영석·원은미 수습기자 ysl@

“외국 종자, 우리 땅에 맞게 끊임없이 연구”

제천영농조합 이은일 사장 인터뷰 “매출 100억 목표... 종자연구 재투자”



제천양채영농조합법인 이은일 사장

“종자 선진국인 네덜란드에 찾아가 직접 양채(서양채소)를 들여왔습니다. 제가 따로 종자를 개량해, 농민들과 함께 봄·가을에 총 4번의 적응성시험을 거칩니다. 기후와 토양에 맞춰 병충해에 강한 종자로 개량하고 맛과 향 같은 품질을 최대로 고려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에 위치한 제천양채영농조합법인 이은일 사장은 종자 개량 전문가다. 총 13가지 양채를 들여와 토양과 기후에 맞게 개량한 것도 이 사장과 조합원들이다.

종자연구개발에 힘쓰고 영농조합을 통해 유통 마진을 줄이니 농가 소득이 올랐다. 2010년에 설립된 제천양채영농조합은 이 사장을 비롯 27명의 조합원이 종자 연구개발, 육묘, 수확, 유통, 판매까지 생산의 전 과정을 담당해 지난해에만 70억의 매출을 올렸다. 그가 밝힌 올해 목표 매출은 100억 원이다. “투자가 답입니다. 다른 기업에 비하면 많지는 않지만 조합 운영에서 이익이 나면 바로 종자 연구 개발에 재투자 합니다.”

제천양채영농조합은 열악한 국내 종자 산업에도 불구하고 종자 개량에 힘써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백태홍 수습기자 pth7285@